

께

대상 — 높임

에게 / 한테의 높임말입니다. 받는 사람이 나보다 위사람일 때 그 사람을 나타내며, 동사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높임 대상(받는 사람)	께	선생님께 드렸어요
높임 대상(출처)	께 — 형태 동일	부모님께 배웠어요
동사도 맞춰야 함	드리다, 여쭙보다	말씀드렸어요
일반적인 사람에 게는	에게 / 한테	친구한테 줬어요
장소에는	에	회사에 보냈어요
행동하는 사람(받는 사람 아님)	께서	선생님께서 주셨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받는 사람이 선생님, 부모님, 할머니·할아버지, 상사, 고객일 때 에게와 한테 대신 께를 씁니다. 형태는 변하지 않으며, 장소에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. 회사에는 여전히 다음을 씁니다: 예.

께를 쓰면 동사도 맞춰야 합니다. 한국어의 높임은 한 세트로 움직이므로 께는 겸양 동사와 짝을 이룹니다. 주다 → 드리다, 묻다 → 여쭙보다, 말하다 → 말씀드리다. 선생님께 여쭙봤어요.

거의 모든 학습자가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께는 받는 사람을 나타내고 ; 께서는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. 한 음절 차이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. 한테서의 높임 형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께는 출처도 나타냅니다: 선생님께 배웠어요.

■ 예문

- 1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어요.
- 2 부모님께 안부 전해 주세요.
- 3 교수님께 여쭙보겠습니다.
- 4 할머니께 선물을 보냈어요.
- 5 사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.
- 6 선배님께 조언을 구했어요.

■ 비교

에게 / 한테
문법적 역할은 같고 높임의 정도가 다릅니다. 께는 직함으로 부를 만한 사람에게만 씁니다.
친구한테 줬어요. / 선생님께 드렸어요.

께서
께서는 높이는 사람을 주어로, 께는 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. 누가 행동하고 누가 받는지 확인한 뒤 고르세요.
선생님께서 주셨어요. (선생님이 주셨다) / 선생님께 드렸어요. (내가 선생님께 드렸다)

한테서 / 에게서
서로 끝나는 높임 형태는 없습니다. 출처를 높여야 할 때는 께가 양방향 을 모두 맡고, 의미는 동사가 정합니다.
친구한테서 들었어요. / 선생님께 들었어요.

■ 주의

- ✗ 선생님께 책을 줬어요.
- 선생님께 책을 드렸어요.
께로 받는 사람을 나타냈으면 동사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. 주다는 드리다가 되며, 높임이 어긋나면 아예 높임을 쓰지 않은 것보다 더 눈에 띕니다.
- ✗ 친구께 선물을 줬어요.
-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.
께는 높이는 사람에게 씁니다. 친구에게 쓰면 더 공손한 것이 아니라 어색하게 들립니다.
- ✗ 선생님께서 책을 드렸어요.
- 선생님께 책을 드렸어요.
드리다는 말하는 사람이 위사람에게 준다는 뜻이므로 선생님은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께서를 쓰면 선생님이 주는 사람이 되어 동사와 모순됩니다.